

거주자 평가(POE)¹⁾를 통한 아파트 주호 실내 계획에 관한 연구

- 대구 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Apartment Interior Plans by POE of Residents

- Focusing on Residents in Daegu -

최정원* / Choi, Jung-Won
하미경** / Ha, Mi-Kyoung

제해성*** / Je, Hae-Seong
이효창**** / Lee, Hyo-Chang

Abstract

As the increase in quantity of apartments has been stable, consumers' needs in housing quality become more divers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endency of residents, construction companies has developed brands of apartment buildings with the concepts of LOHAS²⁾, well-being, ergonomics, ubiquitous. However, these trends has been focusing on the Capital area, and becoming fixed and typical in the way of delux quality, large-sized houses and a healthful residence. For that reason, this research is about survey on the needs of the local apartment residents, especially in Daegu. This analysis of their preferences will furnish basic data and offer possible interior plans to building companies making inroads into the Daegu apartment market.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questionnaire forms which had been collected for two months(in Aug.-Oct.) of 2005 in Daegu and the amount of the samples is 135. All of them are the residents of the apartments where they moved in after 2000.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evaluation of plane composition and practicality, interior finishing and design, and spaces for item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interior design and finishing materials of apartments in Daegu should be improved and the drainage and uncleanness of bathroom also need to be considered, much like the results of Seoul area. However, regarding the higher age range and life stage, the bedroom 2 needs to be planned for a study and the design of livingroom is preferred to be widely open. Besides, comparing with those in Seoul, the residents in Daegu demand that spaces for things (especially those in secondary kitchen and dress room) be more organized and convenient.

키워드 : 거주자 POE, 대구 지역 아파트, 주호 계획

Keywords : Residents POE, Daegu Local Apartment, Apartment, Interior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993년까지 70%대에 머물던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주택정책에 따라, 94년 83.5%를 넘었으며, 2002년 이후에는 100%를 상회, 2004년 말 현재 102.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총 주택 수는 2005년 현재 5.3%가 증가, 가구 증가율 11.0% 보다 주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³⁾ 이는 주택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주거에 대한 요구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 후반 IMF사태로 건설 시장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건설사들은 미분양 사태를 막고,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사의 브랜드화를 내세우며 여러 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도입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2004년 화성 동탄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⁴⁾, 아파트 단지나 주동 및 주호 실내 환경에 적용되어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1) Post Occupancy Evaluation(거주 후 평가 시스템): 특정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 나타는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 뒤 이를 다음 사업의 설계나 시공에 반영하는 주택 마케팅의 한 방법

2)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

3) 통계청, <http://www.nso.go.kr>, '연도별 주택보급률' 참조

로하스나 웰빙, 어그노믹스, 유비쿼터스 등의 컨셉을 중심으로 고품격, 대형화, 고급화, 친환경, 친건강, 생태적, 커뮤니티 친화적 공간 디자인 등으로 트렌드화 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정형화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수도권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택지 부족의 영향으로⁶⁾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 아파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2004년 현재 87.8%로 전국 주택보급률(102.2%)이나 수도권 주택보급률(93.9%)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소유율도 6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아, 대구 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설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대구 아파트 시장 진출에 있어, 대구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호에 기초한 다양한 주거요구를 파악, 분석하여 아파트 주호 평면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그 계획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대구 아파트 POE조사는 2005년 8월에서 10월 중, 총 8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대구 시내의 조사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총 135세대(5개 단지⁷⁾)에 대해 단지별, 평형별로 조사공고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답변 후 수거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생활 패턴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평면 구성에 대한 평가와 실용성 및 디자인 특성을 고려한 마감 및 디자인 평가, 그리고 수납현황 및 동선을 고려한 수납공간 평가 등이었다<표 1>. 조사결과로 도출된 수치는 빈도와 전체 계에 대한 비율,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 던컨의 사후 검정 등으로 처리하여 각 조사 항목별 표로 정리 하였다.

4)이보라·신연섭·연태경, 국내공동주택 트렌드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 5.
 5)최정원·임보련·이효창·하미경,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선호 분석을 통한 건설사의 지방 시장 진출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 5.
 6)건설 교통부, <http://www.moct.go.kr>, '전국 주택건설(인.허가)실적': 1/4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건설물량은 3467 가구에 불과, 지난해 동기(3946가구) 대비 12.1% 줄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건설 물량은 2만4502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9925 가구)보다 18.1% 감소했다.
 7)2005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대구지역 1,2순위였던 H사와 T사, 2005년 대구지역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부문 1,2,3위였던 D, L, S사의 아파트 중 2000년 이후 입주 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조사 내용

| | |
|------------------|---|
| 세대 내부에 대한 전반적 평가 | 평면계획 |
| | 실내 인테리어 및 수납평가 |
| 평면 계획 | 전반적 평가 |
| | 만족도(공간배치, 면적, 거실 발코니 형태) |
| | 각 실 용도 |
| | 발코니 확장 |
| 실내인테리어 및 수납 평가 | 축소 및 확장 희망공간 |
| | 실내 인테리어 전반적 평가와 만족도 |
| | 물만사항 (디자인, 마감재 재질, 색상, 내구성, 오염도, 청소 용이성) 수납공간 전반적 평가와 만족도 |
| 공간별 평가 | 거실 |
| | 안방 및 침실 |
| | 주방 및 보조주방 |
| | 욕실 |
| | 현관 및 전실 |

2. 조사결과 및 분석

2.1. 조사 대상 아파트 특성 및 거주자 특성

(1) 조사 대상 아파트 특성

평형별로는 30평형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입주 시기는 2005년, 거주층은 지상층이 가장 많았다. <표 2>

(2) 조사 대상 거주자 특성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77.0%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 중 30대와 4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은 모두 가족 내에서 주부(어머니)의 위치를, 남성은 모두 가장(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였다. <표 3, 4>

<표 2> 조사 대상 아파트 특성

| | | n=135 | | | | | | | | | | | |
|--------|--------|-------|------|----|------|----|------|----|------|----|------|------|------|
| | | L | | D | | T | | H | | S | | 계 |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평형 | 20평형 | - | - | 3 | 8.8 | - | - | - | - | 5 | 31.3 | 8 | 5.9 |
| | 30평형 | 13 | 30.2 | 8 | 23.5 | 5 | 18.5 | 9 | 60.0 | 6 | 37.5 | 41 | 30.4 |
| | 40평형 | 15 | 34.9 | 6 | 17.6 | 6 | 22.2 | 6 | 40.0 | 5 | 31.3 | 38 | 28.1 |
| | 50평형 | 9 | 20.9 | 12 | 35.3 | 6 | 22.2 | - | - | - | - | 27 | 20.0 |
| | 60평형이상 | 6 | 14.0 | 5 | 14.7 | 10 | 37.0 | - | - | - | - | 21 | 15.6 |
| | 계 | 43 | 100 | 34 | 100 | 27 | 100 | 15 | 100 | 16 | 100 | 135 | 100 |
| 입주 시기 | 2000 | - | - | - | - | - | - | - | - | 9 | 56.3 | 9 | 6.7 |
| | 2001 | - | - | - | - | - | - | 1 | 6.7 | 4 | 25.0 | 5 | 3.7 |
| | 2002 | - | - | - | - | - | - | 2 | 13.3 | 1 | 6.3 | 3 | 2.2 |
| | 2003 | 1 | 2.3 | - | - | - | - | 4 | 26.7 | 1 | 6.3 | 6 | 4.4 |
| | 2004 | 39 | 90.7 | 2 | 5.9 | 20 | 74.1 | 8 | 53.3 | - | - | 69 | 5.1 |
| | 2005 | 3 | 7.0 | 32 | 94.1 | 7 | 25.9 | - | - | 1 | 6.3 | 43 | 31.9 |
| | 계 | 43 | 100 | 34 | 100 | 27 | 100 | 15 | 100 | 16 | 100 | 135 | 100 |
| 거주 층 * | 최상층 | 3 | 7.0 | 9 | 27.3 | 3 | 11.1 | 2 | 13.3 | 2 | 12.5 | 19 | 14.2 |
| | 중간층 | 1 | 2.3 | 1 | 3.0 | 2 | 7.4 | 3 | 20.0 | 3 | 18.8 | 10 | 7.5 |
| | 지상층 | 39 | 90.7 | 23 | 69.7 | 22 | 81.5 | 10 | 66.7 | 11 | 68.8 | 105 | 78.4 |
| | 계 | 43 | 100 | 33 | 100 | 27 | 100 | 15 | 100 | 16 | 100 | 134*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 최상층은 최고층, 지상층은 1층, 중간층은 그 사이에 위치한 층들을 의미함.

<표 3> 조사대상 거주자 특성 1

n=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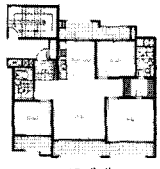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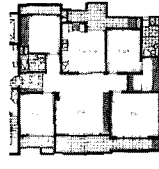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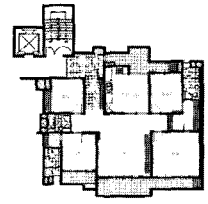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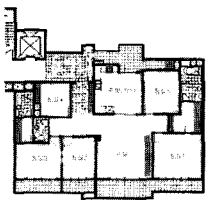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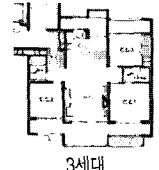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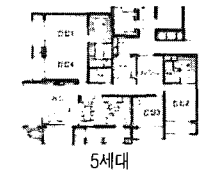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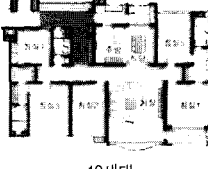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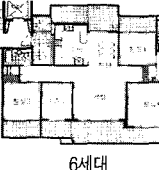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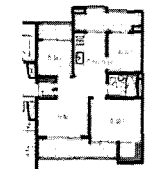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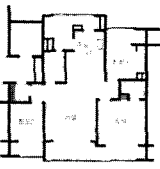

| | | L | | D | | T | | H | | S | | 계 | |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별상 | 남 | 5 | 11.6 | 10 | 29.4 | 6 | 22.2 | 8 | 53.3 | 2 | 12.5 | 31 | 23.0 |
| | 여 | 38 | 88.4 | 24 | 70.6 | 21 | 77.8 | 7 | 46.7 | 14 | 87.5 | 104 | 77.0 |
| | 계 | 43 | 100 | 34 | 100 | 27 | 100 | 15 | 100 | 16 | 100 | 135 | 100 |
| 연령 | 35세 미만 | 6 | 14.0 | 7 | 20.6 | 4 | 14.8 | 8 | 53.3 | 5 | 31.3 | 30 | 22.2 |
| | 35~40세미만 | 10 | 23.3 | 9 | 26.5 | 3 | 11.1 | 3 | 20.0 | 1 | 6.3 | 26 | 19.3 |
| | 40~45세미만 | 4 | 9.3 | 2 | 5.9 | 8 | 29.6 | 4 | 26.7 | 5 | 31.3 | 23 | 17.0 |
| | 45~50세미만 | 12 | 27.9 | 8 | 23.5 | 3 | 11.1 | 0.0 | 0.0 | 1 | 6.3 | 24 | 17.8 |
| | 50~55세미만 | 6 | 14.0 | 4 | 11.8 | 5 | 18.5 | 0.0 | 0.0 | 2 | 12.5 | 17 | 12.6 |
| | 55~60세미만 | 2 | 4.7 | 3 | 8.8 | 2 | 7.4 | 0.0 | 0.0 | 0.0 | 0.0 | 7 | 5.2 |
| | 60세 이상 | 3 | 7.0 | 1 | 2.9 | 2 | 7.4 | 0.0 | 0.0 | 2 | 12.5 | 8 | 5.9 |
| | 계 | 43 | 100 | 34 | 100 | 27 | 100 | 15 | 100 | 16 | 100 | 135 | 100 |

<표 4> 조사대상 거주자 특성 2

n=135

| | | 미취학자녀 | | 초등기 | | 중고등기 | | 성인기 | | 계 | |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평형 | 20평형 | 6 | 42.9 | 6 | 42.9 | 2 | 14.2 | - | - | 14 | 100 |
| | 30평형 | 28 | 44.0 | 17 | 27.0 | 4 | 6.0 | 14 | 22.0 | 63 | 100 |
| | 40평형 | 5 | 8.5 | 14 | 23.7 | 22 | 37.3 | 18 | 30.5 | 59 | 100 |
| | 50평형 | 5 | 10.9 | 13 | 28.3 | 12 | 26.9 | 16 | 34.8 | 46 | 100 |
| | 60평형이상 | 2 | 11.7 | - | - | 3 | 17.7 | 12 | 70.6 | 17 | 100 |
| 총자녀수 | 1명 | 6 | 13.3 | 2 | 4.1 | 5 | 11.6 | 9 | 15.3 | 22 | 11.2 |
| | 2명 | 38 | 84.4 | 39 | 79.6 | 28 | 65.1 | 39 | 66.1 | 144 | 73.5 |
| | 3명 | 1 | 2.2 | 8 | 16.3 | 10 | 23.3 | 11 | 18.6 | 30 | 15.3 |
| | 계 | 45 | 100.0 | 49 | 100.0 | 43 | 100.0 | 59 | 100.0 | 196 | 100.0 |

<표 5> 조사대상 아파트 특성

| 단지 | 조사 대상수 (총 세대수) | 평면 구성 | | | | |
|----|-------------------|--|--|--|---|---|
| | | 20평형 | 30평형 | 40평형 | 50평형 | 60평형 |
| L | 43 (1,619) | - |  13세대 |  15세대 |  9세대 |  6세대 |
| D | 34 (664) |  3세대 |  8세대 |  6세대 |  12세대 |  5세대 |
| T | 27 (480) | - |  5세대 |  6세대 |  6세대 |  10세대 |
| H | 15 (716) | - |  9세대 |  6세대 | - | - |
| S | 16 (767) |  5세대 |  6세대 |  5세대 | - | - |

22. 주호 평면 계획 평가

(1) 주호 평면 현황

1) 평형별 침실의 용도

평형별 평균 침실 수는 20평형에서 3.0개, 30평형 3.1개, 40평형 4.0개, 50평형 4.2개, 그리고 60평 이상에서 4.6개로 나타났다. 20평형의 경우, 침실4 이상은 계획되지 않았다. 침실1은

모든 평형에서 부부침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침실 2는 주로 자녀침실로 사용하였으나, 50평형과 60평형에서는 서재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50평형과 60평형의 거주자 연령이 다른 평형의 거주자들보다 높아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학업, 직장을 위해 분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2) 단지 및 평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

발코니 확장이 가장 많은 단지는 D단지였고, 평형별로는 40평형 이상에서 40평형 이하에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평형에서의 확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D단지 50평형의 경우, 거실이 다른 평형에 비해 주로 전체에 대한 거실 면적의 비율이 다소 낮아 발코니 확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표 6> 침실의 현재 사용현황

n=135

| 구분 | 20평형 | | 30평형 | | 40평형 | | 50평형 | | 60평형 | | 계 | |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 침실1 | 부부침실 | 8 | 100 | 40 | 97.6 | 33 | 86.8 | 24 | 88.9 | 16 | 76.2 | 121 | 89.6 |
| | 서재 | 0 | 0.0 | 0 | 0.0 | 2 | 5.3 | 1 | 3.7 | 1 | 4.8 | 4 | 3.0 |
| | 주부개인침실 | 0 | 0.0 | 1 | 2.4 | 2 | 5.3 | 0 | 0.0 | 3 | 14.3 | 6 | 4.4 |
| | 계 | 8 | 100 | 41 | 100 | 38 | 100 | 27 | 100 | 21 | 100 | 135 | 100 |
| 침실2 | 부부침실 | 0 | 0.0 | 1 | 2.4 | 3 | 7.9 | 3 | 11.1 | 3 | 14.3 | 10 | 7.4 |
| | 자녀침실 | 5 | 62.5 | 23 | 56.1 | 19 | 50.0 | 10 | 37.0 | 3 | 14.3 | 60 | 44.4 |
| | 자녀놀이방 | 1 | 12.5 | 3 | 7.3 | 0 | 0.0 | 0 | 0.0 | 0 | 0.0 | 4 | 3.0 |
| | 서재 | 2 | 25.0 | 11 | 26.8 | 10 | 26.3 | 11 | 40.7 | 9 | 42.9 | 43 | 31.9 |
| | 옷방/창고방 | 0 | 0.0 | 1 | 2.4 | 2 | 5.3 | 1 | 3.7 | 2 | 9.5 | 6 | 4.4 |
| | 작업실 | 0 | 0.0 | 0 | 0.0 | 0 | 0.0 | 1 | 3.7 | 0 | 0.0 | 1 | 0.7 |
| | 주부개인침실 | 0 | 0.0 | 1 | 2.4 | 2 | 5.3 | 0 | 0.0 | 2 | 9.5 | 5 | 3.7 |
| 계 | 8 | 100 | 41 | 100 | 38 | 100 | 27 | 100 | 21 | 100 | 135 | 100 | |
| 침실3 | 자녀침실 | 3 | 37.5 | 22 | 53.7 | 25 | 67.6 | 24 | 88.9 | 9 | 42.9 | 83 | 61.9 |
| | 자녀놀이방 | 3 | 37.5 | 5 | 12.2 | 5 | 13.5 | 2 | 7.4 | 1 | 4.8 | 16 | 11.9 |
| | 서재 | 1 | 12.5 | 8 | 19.5 | 4 | 10.8 | 1 | 3.7 | 2 | 9.5 | 16 | 11.9 |
| | 옷방/창고방 | 1 | 12.5 | 4 | 9.8 | 2 | 5.4 | 0 | 0.0 | 4 | 19.0 | 11 | 8.2 |
| | 작업실 | 0 | 0.0 | 1 | 2.4 | 0 | 0.0 | 0 | 0.0 | 1 | 4.8 | 2 | 1.5 |
| | 주부개인침실 | 0 | 0.0 | 1 | 2.4 | 0 | 0.0 | 0 | 0.0 | 1 | 4.8 | 2 | 1.5 |
| | 계 | 8 | 100 | 41 | 100 | 37 | 100 | 27 | 100 | 21 | 100 | 134* | 100 |
| 침실4 | 부부침실 | - | - | 1 | 33.3 | 0 | 0.0 | 1 | 4.0 | 0 | 0.0 | 2 | 2.6 |
| | 자녀침실 | - | - | 2 | 66.7 | 16 | 50.0 | 12 | 48.0 | 16 | 80.0 | 46 | 61.0 |
| | 자녀놀이방 | - | - | 0 | 0.0 | 5 | 15.6 | 3 | 12.0 | 0 | 0.0 | 8 | 10.5 |
| | 서재 | - | - | 0 | 0.0 | 8 | 25.0 | 4 | 16.0 | 1 | 5.0 | 13 | 17.1 |
| | 옷방/창고방 | - | - | 0 | 0.0 | 2 | 6.3 | 0 | 0.0 | 0 | 0.0 | 2 | 2.6 |
| | 작업실 | - | - | 0 | 0.0 | 1 | 3.1 | 2 | 8.0 | 0 | 0.0 | 3 | 3.9 |
| | 주부개인침실 | - | - | 0 | 0.0 | 0 | 0.0 | 1 | 4.0 | 0 | 0.0 | 1 | 1.3 |
| 계 | - | - | 3 | 100 | 32 | 100 | 24 | 100 | 17 | 100 | 76* | 100 | |
| 침실5 | 자녀침실 | - | - | 0 | 0.0 | 0 | 0.0 | 0 | 0.0 | 5 | 38.5 | 5 | 21.7 |
| | 자녀놀이방 | - | - | 0 | 0.0 | 0 | 0.0 | 1 | 14.3 | 0 | 0.0 | 1 | 4.3 |
| | 서재 | - | - | 1 | 100 | 0 | 0.0 | 1 | 14.3 | 3 | 23.1 | 5 | 21.7 |
| | 옷방/창고방 | - | - | 0 | 0.0 | 1 | 50.0 | 3 | 42.9 | 5 | 38.5 | 9 | 39.1 |
| | 작업실 | - | - | 0 | 0.0 | 0 | 0.0 | 1 | 14.3 | 0 | 0.0 | 1 | 4.3 |
| | 주부개인침실 | - | -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계 | - | - | 1 | 100 | 2 | 100 | 7 | 100 | 13 | 100 | 23* | 100 |

* 무응답자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7> 발코니 확장 여부

n=135

| 구분 |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비확장 | | 계 | | |
|----|---------|----|---------|----|------|------|-------|
| | f | % | f | % | f | % | |
| 단지 | L | 12 | 27.9 | 31 | 72.1 | 43 | 100.0 |
| | D | 19 | 57.6 | 14 | 42.4 | 33 | 100.0 |
| | T | 8 | 29.6 | 19 | 70.4 | 27 | 100.0 |
| | H | 7 | 46.7 | 8 | 53.3 | 15 | 100.0 |
| | S | 4 | 25.0 | 12 | 75.0 | 16 | 100.0 |
| | 계 | 50 | 37.3 | 84 | 62.7 | 134* | 100.0 |
| 평형 | 20평형 | 2 | 25.0 | 6 | 75.0 | 8 | 100.0 |
| | 30평형 | 8 | 19.5 | 33 | 80.5 | 41 | 100.0 |
| | 40평형 | 16 | 42.1 | 22 | 57.9 | 38 | 100.0 |
| | 50평형 | 14 | 53.8 | 12 | 46.2 | 26 | 100.0 |
| | 60평형 이상 | 10 | 47.6 | 11 | 52.4 | 21 | 100.0 |
| | 계 | 50 | 37.3 | 84 | 62.7 | 134* | 10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3) 단지 및 평형별 발코니 확장 위치

발코니 확장은 거실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단지별로는

D단지에서, 평형별로는 40평형과 50평형에서 확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침실2와 침실3의 순으로 확장한 경우가 많았으며, 안방에 해당하는 침실1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D단지의 경우, 거실 면적의 비율이 다른 단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40평형과 50평형의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 비해 거실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침실1의 경우, 대부분의 평형에서 충분한 면적을 계획하였고, 해당 발코니를 세탁물 건조나 수납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8>

<표 8> 발코니 확장 위치(모두선택)

| 구분 | 거실 | | 침실1 | | 침실2 | | 침실3 | | 침실4 | | 침실5 | | 주방 | |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 단지 | L | 9 | 39.1 | 1 | 4.3 | 4 | 17.4 | 4 | 17.4 | 3 | 13.0 | 0 | 0.0 | 2 | 8.7 |
| | D | 16 | 30.8 | 9 | 17.3 | 10 | 19.2 | 10 | 19.2 | 6 | 11.5 | 1 | 1.9 | 0 | 0.0 |
| | T | 7 | 21.2 | 3 | 9.1 | 7 | 21.2 | 8 | 24.2 | 7 | 21.2 | 1 | 3.0 | 0 | 0.0 |
| | H | 5 | 27.8 | 0 | 0.0 | 7 | 38.9 | 4 | 22.2 | 1 | 5.6 | 0 | 0.0 | 1 | 5.6 |
| | S | 2 | 22.2 | 0 | 0.0 | 3 | 33.3 | 4 | 44.4 | 0 | 0.0 | 0 | 0.0 | 0 | 0.0 |
| | 계 | 39 | 100 | 13 | 100 | 31 | 100 | 30 | 100 | 17 | 100 | 2 | 100 | 3 | 100 |
| 평형 | 20평형 | 0 | 0.0 | 0 | 0.0 | 1 | 50.0 | 1 | 50.0 | 0 | 0.0 | 0 | 0.0 | 0 | 0.0 |
| | 30평형 | 7 | 18.0 | 0 | 0.0 | 8 | 34.8 | 8 | 34.8 | 0 | 0.0 | 0 | 0.0 | 0 | 0.0 |
| | 40평형 | 12 | 30.8 | 2 | 5.1 | 9 | 23.1 | 9 | 23.1 | 6 | 15.4 | 0 | 0.0 | 1 | 2.6 |
| | 50평형 | 11 | 28.2 | 4 | 11.4 | 8 | 22.9 | 7 | 20.0 | 4 | 11.4 | 0 | 0.0 | 1 | 2.9 |
| | 60평형 이상 | 9 | 23.1 | 7 | 19.4 | 5 | 13.9 | 5 | 13.9 | 7 | 19.4 | 2 | 5.6 | 1 | 2.8 |
| | 계 | 39 | 100 | 13 | 100 | 31 | 100 | 30 | 100 | 17 | 100 | 2 | 100 | 3 | 100 |

2.3. 평면 구성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1) 단지 및 평형별 평면구성 만족도

평면구성(배치 및 면적)에 대한 만족도는 T단지의 평균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평형별로는 20평형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3.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T단지의 경우, 실 수가 많아져도 거실을 평면의 중심 전면에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실들을 계획하였고, 20평형 주호들 역시 이러한 배치를 바탕으로 수납공간이나 보조주방을 배치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표 9> 평면구성(배치, 면적) 만족도

n=135

| 구분 | f | 평균 | |
|----|---------|------|------|
| 단지 | L | 43 | 3.35 |
| | D | 33 | 3.76 |
| | T | 27 | 3.78 |
| | H | 15 | 3.40 |
| | S | 16 | 3.63 |
| | 계 | 134* | 3.57 |
| 평형 | 20평형 | 8 | 3.88 |
| | 30평형 | 41 | 3.46 |
| | 40평형 | 38 | 3.58 |
| | 50평형 | 26 | 3.58 |
| | 60평형 이상 | 21 | 3.67 |
| | 계 | 134* | 3.57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2) 평형별 축소 및 확장 요구도

축소희망공간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1.1%로 나타났으며, 평형별로는 작은 평형일수록 '없다'의 비율이 높았

다. 60평형 이상의 경우 전체의 33.3%가 현관 및 전실의 축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희망 공간은 전반적으로 거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20평형에서 거실에 대한 확장 희망이 50.0%로 가장 높았고, 30평형에서는 침실2(24.4%)가, 40평형은 거실 (18.9%), 50평형도 거실 (22.2%), 60평형은 거실(38.1%)외에 보조주방 후면발코니(28.6%)도 높게 나타났다.<표 10>

<표 10> 확장 희망 공간(평형별) n=135

| 구분 | 평형별 확장 희망 공간 | | | | | | | | | | | |
|------------|--------------|------|------|------|------|------|------|------|------|------|------|------|
| | 20평대 | | 30평대 | | 40평대 | | 50평대 | | 60평대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거실 | 4 | 50.0 | 6 | 14.6 | 7 | 18.9 | 6 | 22.2 | 8 | 38.1 | 31 | 23.1 |
| 침실1(안방) | 0 | 0.0 | 7 | 17.1 | 1 | 2.7 | 0 | 0.0 | 2 | 9.5 | 10 | 7.5 |
| 안방 드레스룸 | 0 | 0.0 | 3 | 7.3 | 4 | 10.8 | 4 | 14.8 | 1 | 4.8 | 12 | 9.0 |
| 침실2 | 0 | 0.0 | 10 | 24.4 | 2 | 5.4 | 2 | 7.4 | 0 | 0.0 | 14 | 10.4 |
| 침실3 | 0 | 0.0 | 3 | 7.3 | 4 | 10.8 | 1 | 3.7 | 1 | 4.8 | 9 | 6.7 |
| 침실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4.8 | 1 | 0.7 |
| 주방 | 0 | 0.0 | 4 | 9.8 | 2 | 5.4 | 4 | 14.8 | 1 | 4.8 | 11 | 8.2 |
| 보조주방 후면발코니 | 0 | 0.0 | 2 | 4.9 | 4 | 10.8 | 3 | 11.1 | 6 | 28.6 | 15 | 11.2 |
| 공용욕실 | 0 | 0.0 | 0 | 0.0 | 1 | 2.7 | 0 | 0.0 | 1 | 4.8 | 2 | 1.5 |
| 부부욕실 | 0 | 0.0 | 2 | 4.9 | 1 | 2.7 | 0 | 0.0 | 0 | 0.0 | 3 | 2.2 |
| 현관/전실 | 1 | 12.5 | 2 | 4.9 | 0 | 0.0 | 0 | 0.0 | 0 | 0.0 | 3 | 2.2 |
| 없음 | 3 | 37.5 | 2 | 4.9 | 11 | 29.7 | 6 | 22.2 | 0 | 0.0 | 22.6 | 16.4 |
| 계 | 8 | 100 | 41 | 100 | 37 | 100 | 27 | 100 | 21 | 100 | 134*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3) 단지 및 평형 별 거실 전면 발코니 형태 만족도

거실 전면 발코니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단지별로 볼 때, D 단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D단지의 경우 입체적인 평면 형태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발코니가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실의 발코니에 비해 거실 전면 발코니에 우선적으로 충분한 면적을 배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11>

<표 11> 발코니 형태 만족도 n=135

| 구분 | f | 평균 | |
|----|---------|------|------|
| 단지 | L | 43 | 3.07 |
| | D | 34 | 3.74 |
| | T | 27 | 3.44 |
| | H | 14 | 3.36 |
| | S | 16 | 3.38 |
| | 계 | 134 | 3.38 |
| 평형 | 20평형 | 8 | 3.63 |
| | 30평형 | 41 | 3.37 |
| | 40평형 | 37 | 3.24 |
| | 50평형 | 27 | 3.33 |
| | 60평형 이상 | 21 | 3.62 |
| 계 | 134* | 3.38 |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2.4. 아파트 실내 공간 평가

(1) 실내 공간 및 수납공간 만족도와 요구도

1) 전반적 실내 공간 만족도와 개보수 현황

전반적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3.33으로 T 단지가 평균 3.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단지(3.50), D 단지(3.44), L단지(3.21), H단지(2.93) 순이었다. 이는 전반적 공

간 평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거실에 대한 불만사항이 T단지에서 가장 낮은 비율(표 9.)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된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이 3.75%로 가장 높았고, 60평형 이상은 3.33, 30평형은 3.32, 50평형은 3.30, 그리고 40평형은 3.29로 나타났는데, 20평형의 경우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한 공간계획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개보수 현황은 이전 집주인이 한 경우가 55.9%, 직접한 경우는 2.2%였으며, 41.8%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지 및 평형 별 불만족 실내 공간

불만족스러운 실내 공간으로는 전체적으로 거실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용욕실 13.4%, 보조주방 10.4%, 안방 드레스룸 8.2%, 부부욕실6.7%, 주방6.0%, 현관/전실5.2%, 침실1 3.0%, 침실2 2.2%, 침실3 2.2%, 침실4 0.7% 순이었다.

대부분 거실과 침실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L단지에서는 보조주방과 공용욕실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또한 H단지에서는 부부욕실, S단지에서는 거실 외에도 주방과 공용욕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의 경우는 공용욕실, 30평형과 60평형에서는 보조주방, 40평형과 50평형에서는 거실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표 12, 13>

<표 12> 불만족 실내 공간(단지별) n=135

| 구분 | 단지 | | | | | | | | | | | |
|---------|----|------|----|------|----|------|----|------|----|------|------|------|
| | L | | D | | T | | H | | S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거실 | 6 | 14.0 | 9 | 26.5 | 2 | 7.7 | 4 | 26.7 | 2 | 12.5 | 23 | 17.2 |
| 침실1(안방) | 3 | 7.0 | 1 | 2.9 | 0 | 0.0 | 0 | 0.0 | 0 | 0.0 | 4 | 3.0 |
| 안방 드레스룸 | 4 | 9.3 | 0 | 0.0 | 3 | 11.5 | 2 | 13.3 | 2 | 12.5 | 11 | 8.2 |
| 침실2 | 1 | 2.3 | 1 | 2.9 | 0 | 0.0 | 0 | 0.0 | 1 | 6.3 | 3 | 2.2 |
| 침실3 | 0 | 0.0 | 0 | 0.0 | 1 | 3.8 | 2 | 13.3 | 0 | 0.0 | 3 | 2.2 |
| 침실4 | 1 | 2.3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0.7 |
| 주방 | 2 | 4.7 | 1 | 2.9 | 2 | 7.7 | 1 | 6.7 | 2 | 12.5 | 8 | 6.0 |
| 보조주방 | 6 | 14.0 | 4 | 11.8 | 2 | 7.7 | 1 | 6.7 | 1 | 6.3 | 14 | 10.4 |
| 공용욕실 | 6 | 14.0 | 7 | 20.6 | 3 | 11.5 | 0 | 0.0 | 2 | 12.5 | 18 | 13.4 |
| 부부욕실 | 1 | 2.3 | 1 | 2.9 | 1 | 3.8 | 5 | 33.3 | 1 | 6.3 | 9 | 6.7 |
| 현관/전실 | 4 | 9.3 | 1 | 2.9 | 1 | 3.8 | 0 | 0.0 | 1 | 6.3 | 7 | 5.2 |
| 없음 | 6 | 14.0 | 6 | 17.6 | 9 | 34.6 | 0 | 0.0 | 4 | 25.0 | 25 | 18.7 |
| 계 | 43 | 100 | 34 | 100 | 26 | 100 | 15 | 100 | 16 | 100 | 134*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13> 불만족 실내 공간(평형별) n=135

| 구분 | 평형별 확장 희망 공간 | | | | | | | | | | | |
|---------|--------------|------|------|------|------|------|------|------|------|------|------|------|
| | 20평대 | | 30평대 | | 40평대 | | 50평대 | | 60평대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거실 | 0 | 0.0 | 3 | 7.3 | 10 | 26.3 | 7 | 25.9 | 3 | 15.0 | 23 | 17.2 |
| 침실1(안방) | 1 | 12.5 | 0 | 0.0 | 2 | 5.3 | 0 | 0.0 | 1 | 5.0 | 4 | 3.0 |
| 안방 드레스룸 | 1 | 12.5 | 2 | 4.9 | 4 | 10.5 | 3 | 11.1 | 1 | 5.0 | 11 | 8.2 |
| 침실2 | 0 | 0.0 | 2 | 4.9 | 0 | 0.0 | 1 | 3.7 | 0 | 0.0 | 3 | 2.2 |
| 침실3 | 0 | 0.0 | 2 | 4.9 | 1 | 2.6 | 0 | 0.0 | 0 | 0.0 | 3 | 2.2 |
| 침실4 | 0 | 0.0 | 0 | 0.0 | 0 | 0.0 | 1 | 3.7 | 0 | 0.0 | 1 | 0.7 |
| 주방 | 2 | 25.0 | 2 | 4.9 | 0 | 0.0 | 2 | 7.4 | 2 | 10.0 | 8 | 6.0 |
| 보조주방 | 0 | 0.0 | 6 | 14.6 | 3 | 7.9 | 1 | 3.7 | 4 | 20.0 | 14 | 10.4 |
| 공용욕실 | 3 | 37.5 | 5 | 12.2 | 6 | 15.8 | 2 | 7.4 | 2 | 10.0 | 18 | 13.4 |
| 부부욕실 | 0 | 0.0 | 5 | 12.2 | 3 | 7.9 | 1 | 3.7 | 0 | 0.0 | 9 | 6.7 |
| 현관/전실 | 0 | 0.0 | 0 | 0.0 | 4 | 10.5 | 1 | 3.7 | 2 | 10.0 | 7 | 5.2 |
| 없음 | 1 | 12.5 | 12 | 29.3 | 3 | 7.9 | 5 | 18.5 | 4 | 20.0 | 25 | 18.7 |
| 계 | 8 | 100 | 41 | 100 | 38 | 100 | 27 | 100 | 20 | 100 | 134*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3) 구체적 불만족 이유

불만족의 이유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5.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21.4%, 바닥 마감재 재질 14.3%, 오염되기 쉬움 14.3%, 마감재 내구성 8.9%, 벽 마감재 재질 7.1%, 청소 불편 5.4%, 벽지 색 2.7% 순이었다. L 단지의 경우는 디자인 외에도 오염되기 쉬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단지는 마감재 내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20평형에서는 마감재 내구성과 쉬운 오염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30평형은 오염되기 쉬움이, 50평형은 벽과 바닥 마감재 재질에 대한 불만이 다른 평형에 비해 높았다.<표 14, 15>

<표 14> 구체적 불만족 이유(단지별) n=135

| 구분 | 단지 | | | | | | | | | | | |
|-----------|----|------|----|------|----|------|----|------|----|------|------|------|
| | L | | D | | T | | H | | S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디자인 | 9 | 23.1 | 7 | 25.0 | 3 | 16.7 | 6 | 40.0 | 4 | 33.3 | 29 | 25.9 |
| 벽 마감재 재질 | 3 | 7.7 | 2 | 7.1 | 3 | 16.7 | 0 | 0.0 | 0 | 0.0 | 8 | 7.1 |
| 벽지 색 | 1 | 2.6 | 0 | 0.0 | 0 | 0.0 | 2 | 13.3 | 0 | 0.0 | 3 | 2.7 |
| 바닥 마감재 재질 | 6 | 15.4 | 5 | 17.9 | 2 | 11.1 | 1 | 6.7 | 2 | 16.7 | 16 | 14.3 |
| 마감재 내구성 | 2 | 5.1 | 1 | 3.6 | 4 | 22.2 | 1 | 6.7 | 2 | 16.7 | 10 | 9.0 |
| 오염되기 쉬움 | 8 | 20.5 | 4 | 14.3 | 2 | 11.1 | 1 | 6.7 | 1 | 8.3 | 16 | 14.3 |
| 청소 불편 | 1 | 2.6 | 2 | 7.1 | 1 | 5.6 | 0 | 0.0 | 2 | 16.7 | 6 | 5.4 |
| 기타 | 9 | 23.1 | 7 | 25.0 | 3 | 16.7 | 4 | 26.7 | 1 | 8.3 | 24 | 21.4 |
| 계 | 39 | 100 | 28 | 100 | 18 | 100 | 15 | 100 | 12 | 100 | 112*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15> 구체적 불만족 이유(평형별) n=135

| 구분 | 평형 | | | | | | | | | | | |
|-----------|------|------|------|------|------|------|------|------|------|------|------|------|
| | 20평형 | | 30평형 | | 40평형 | | 50평형 | | 60평형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디자인 | 0 | 0.0 | 5 | 15.6 | 16 | 45.7 | 3 | 13.0 | 5 | 31.3 | 29 | 25.9 |
| 벽 마감재 재질 | 0 | 0.0 | 0 | 0.0 | 2 | 5.7 | 4 | 17.4 | 2 | 12.5 | 8 | 7.1 |
| 벽지 색 | 0 | 0.0 | 2 | 6.3 | 1 | 2.9 | 0 | 0.0 | 0 | 0.0 | 3 | 2.7 |
| 바닥 마감재 재질 | 1 | 16.7 | 4 | 12.5 | 5 | 14.3 | 4 | 17.4 | 2 | 12.5 | 16 | 14.3 |
| 마감재 내구성 | 2 | 33.3 | 2 | 6.3 | 2 | 5.7 | 2 | 8.7 | 2 | 12.5 | 10 | 9.0 |
| 오염되기 쉬움 | 2 | 33.3 | 11 | 34.4 | 2 | 5.7 | 1 | 4.3 | 0 | 0.0 | 16 | 14.3 |
| 청소 불편 | 1 | 16.7 | 2 | 6.3 | 0 | 0.0 | 2 | 8.7 | 1 | 6.3 | 6 | 5.4 |
| 기타 | 0 | 0.0 | 6 | 18.8 | 7 | 20.0 | 7 | 30.4 | 4 | 25.0 | 24 | 21.4 |
| 계 | 3 | 100 | 32 | 100 | 35 | 100 | 23 | 100 | 16 | 100 | 112* | 1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4) 마감재 수준개선 희망 항목

마감재 수준 개선을 위한 희망 항목으로는 거실 벽지 및 바닥재가 21.8%로 가장 높았으며, 불박이장이 16.3%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이는 부족한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수납공간 만족도 <표 17, 표 18> 평균 2.79)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표 16>

5) 수납공간 만족도

수납공간의 만족도는 전반적 실내 공간에 대한 만족도(3.33)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D단지과 40평형에서는 다른 단지나 평형보다 만족도가 비교적 높아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7, 18>

<표 16> 마감재 수준개선 희망 항목 n=135

| 구분 | % | 계 |
|-----------------|-------|------|
| 주방 가구 및 빌트인 가전 | 16.0 | 41 |
| 조명기구 | 13.6 | 35 |
| 화장실 욕조/세면대/타일 | 14.4 | 37 |
| 거실 벽지 및 바닥재 | 21.8 | 56 |
| 불박이장 | 16.3 | 42 |
| 드레스룸의 수납장 및 화장대 | 13.2 | 34 |
| 기타 | 4.7 | 12 |
| 계 | 100.0 | 257* |

* 다중응답(모두선택)

<표 17> 수납공간 만족도(단지별) n=135

| 구분 | 단지 | 평균 | 계 |
|----|----|------|------|
| 단지 | L | 2.67 | 42 |
| | D | 3.26 | 34 |
| | T | 2.52 | 27 |
| | H | 2.67 | 15 |
| | S | 2.69 | 16 |
| | 계 | 2.79 | 134*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18> 수납공간 만족도(평형별) n=135

| 구분 | 단지 | 평균 | 계 |
|----|---------|------|------|
| 평형 | 20평형 | 2.88 | 8 |
| | 30평형 | 2.59 | 41 |
| | 40평형 | 3.08 | 38 |
| | 50평형 | 2.70 | 27 |
| | 60평형 이상 | 2.75 | 20 |
| | 계 | 2.79 | 134*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6) 현재 수납 부족 공간

현재 수납 부족 공간으로는 보조주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형 주방 조리기구나 식기 등을 수납하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19>

<표 19> 현재 수납부족공간 순위다중응답 평균점수 n=135

| 구분 | 점수** | 계 |
|--------|-------|------|
| 보조주방 | 0.500 | 130* |
| 안방드레스룸 | 0.492 | 130* |
| 주방 | 0.469 | 130* |
| 침실1 | 0.415 | 130* |
| 침실2 | 0.208 | 130* |
| 침실3 | 0.146 | 130* |
| 공용욕실 | 0.092 | 130* |
| 거실 | 0.077 | 130* |
| 기타 | 0.054 | 130* |
| 현관/전실 | 0.038 | 130* |
| 침실5 | 0.023 | 130* |
| 부부욕실 | 0.015 | 130* |
| 침실4 | 0.015 | 13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 1순위 2점, 2순위 1점, 비선택에 0점의 가중치를 부여한 점수를 합한 후 구한 평균을 점수와 하여 산정한 값임.

(2) 거실 실내 공간 평가

1) 거실 만족도

거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33으로 평균 이상이였으며, 거실의 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향 만족도 이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단지별, 평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던컨의 사후 검정, P<.05)가 없었다. 향에 대한 만족도는 S단지가 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대가 남향이나 남동향의 배치를 하고 있는 단지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거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0평형이, 색채에 대한 만족도는 60평형 이상, 마감재는 20평형, 위치는 30평형, 향은 40평형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20>

<표 20> 거실 만족도 n=135

| 구분 | 단지 | 평균 | Duncan | 평형 | 평균 | Duncan |
|-------|----|------|--------|---------|------|--------|
| 거실 전반 | L | 3.35 | A | 20평형 | 3.38 | A |
| | D | 3.39 | A | 30평형 | 3.39 | A |
| | T | 3.27 | A | 40평형 | 3.34 | A |
| | H | 3.13 | A | 50평형 | 3.40 | A |
| | S | 3.44 | A | 60평형 이상 | 3.10 | A |
| | 합계 | 3.33 | | 합계 | 3.33 | |
| 색채 | L | 3.30 | A | 20평형 | 3.13 | A |
| | D | 3.31 | A | 30평형 | 3.18 | A |
| | T | 3.23 | A | 40평형 | 3.19 | A |
| | H | 2.93 | A | 50평형 | 3.33 | A |
| | S | 3.38 | A | 60평형 이상 | 3.50 | A |
| | 합계 | 3.26 | | 합계 | 3.26 | |
| 마감재 | L | 2.83 | A | 20평형 | 3.25 | A |
| | D | 2.94 | A | 30평형 | 3.00 | A |
| | T | 2.88 | A | 40평형 | 2.89 | A |
| | H | 2.71 | A | 50평형 | 2.79 | A |
| | S | 3.27 | A | 60평형 이상 | 2.75 | A |
| | 합계 | 2.91 | | 합계 | 2.91 | |
| 위치 | L | 3.60 | A | 20평형 | 3.63 | A |
| | D | 3.63 | A | 30평형 | 3.72 | A |
| | T | 3.77 | A | 40평형 | 3.65 | A |
| | H | 3.50 | A | 50평형 | 3.67 | A |
| | S | 3.88 | A | 60평형 이상 | 3.60 | A |
| | 합계 | 3.66 | | 합계 | 3.66 | |
| 향 | L | 3.61 | AB | 20평형 | 3.50 | A |
| | D | 3.37 | A | 30평형 | 3.72 | A |
| | T | 3.69 | AB | 40평형 | 3.77 | A |
| | H | 3.36 | A | 50평형 | 3.22 | A |
| | S | 4.13 | B | 60평형 이상 | 3.58 | A |
| | 합계 | 3.60 | | 합계 | 3.60 | |

2) 거실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마감재 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각 단지별 구체적 불만 사항으로는 20평형의 경우에 협소한 면적과 차음수준이, 30평형에서는 마감재 수준과 차음수준이, 그 외의 평형에서는 마감재 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1>

3) 거실 선호 마감재

거실 바닥 마감재로는 온돌마루(70.4%)를 가장 선호했으며, 벽 마감재와 천장 마감재로는 모두 벽지(57.6%, 67.9%)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 외의 바닥 마감재로는 천연대리석(11.1%)이나 우드룸(9.6%)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많았으며, 벽과 천장 마감재로는 패브릭(벽 15.9%)이나 우드(천장 16.1%) 등에 대한 선호도 다소 높았다.<표 22>

<표 21> 거실의 구체적 불만족 사항(평형별) n=135

| 구분 | 평형 | | | | | | | | | | | |
|----------|------|------|------|------|------|------|------|------|------|------|------|------|
| | 20평대 | | 30평대 | | 40평대 | | 50평대 | | 60평대 | | 계 | |
| | f | % | f | % | f | % | f | % | f | % | f | % |
| 협소한 면적 | 4 | 26.7 | 4 | 5.7 | 6 | 8.7 | 8 | 15.7 | 4 | 13.3 | 26 | 11.1 |
| 짧은 거실 폭 | 0 | 0.0 | 3 | 4.3 | 6 | 8.7 | 4 | 7.8 | 0 | 0.0 | 13 | 5.5 |
| 짧은 거실 깊이 | 1 | 6.7 | 2 | 2.9 | 3 | 4.3 | 0 | 0.0 | 1 | 3.3 | 7 | 3.0 |
| 전반적인테리어 | 1 | 6.7 | 11 | 15.7 | 10 | 14.5 | 5 | 9.8 | 3 | 10.0 | 30 | 12.8 |
| 마감재 | 2 | 13.3 | 22 | 31.4 | 18 | 26.1 | 16 | 31.4 | 9 | 30.0 | 67 | 28.5 |
| 차음 | 4 | 26.7 | 12 | 17.1 | 18 | 26.1 | 9 | 17.6 | 4 | 13.3 | 47 | 20.0 |
| 단열 | 1 | 6.7 | 1 | 1.4 | 2 | 2.9 | 3 | 5.9 | 1 | 3.3 | 8 | 3.4 |
| 불만없음 | 2 | 13.3 | 13 | 18.6 | 6 | 8.7 | 4 | 7.8 | 6 | 20.0 | 31 | 13.2 |
| 기타 | 0 | 0.0 | 2 | 2.9 | 0 | 0.0 | 2 | 3.9 | 2 | 6.7 | 6 | 2.6 |
| 계 | 15 | 100 | 70 | 100 | 69 | 100 | 51 | 100 | 30 | 100 | 235* | 100 |

*다중응답

<표 22> 거실 선호 마감재 n=135

| 구분 | f | % |
|--------|------|-------|
| 온돌마루 | 96 | 70.4 |
| 천연대리석 | 15 | 11.1 |
| 인조대리석 | 2 | 1.5 |
| 비닐타일 | 1 | 0.7 |
| 타일 | 1 | 0.7 |
| 카펫 | 1 | 0.7 |
| 한지장판 | 1 | 0.7 |
| 우드룸 | 13 | 9.6 |
| 마모룸 | 1 | 0.7 |
| 기타 | 5 | 3.7 |
| 계 | 135 | 100.0 |
| 벽지 | 76 | 57.6 |
| 패브릭 | 21 | 15.9 |
| 도장 | 1 | 0.8 |
| 우드 | 12 | 9.1 |
| 벽돌 | 2 | 1.5 |
| 대리석 | 16 | 12.1 |
| 하이그로스 | 2 | 1.5 |
| 페인팅글라스 | 2 | 1.5 |
| 계 | 132* | 100.0 |
| 벽지 | 76 | 67.9 |
| 패브릭 | 11 | 9.8 |
| 도장 | 7 | 6.3 |
| 우드 | 18 | 16.1 |
| 계 | 112* | 10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4) 거실 수납공간 평가

조사 대상자중 거실장을 입주시 옵션으로 선택한 거주자는 56.9%였으며, 선택한 거주자 중 거실장을 다른 공간에서 사용하거나 버린 경우가 많았다. 불만족 사유로는 재질 및 색상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디자인(24.6%)이나 수납공간(13.1%)을 이유로 들었다.<표 23>

(3) 침실 실내공간 평가

1) 침실 만족도

안방 및 침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균은 3.40으로 나타났으며, T단지가 3.63으로 가장 높았다. 위치에 대한 만족도 T단지가 가장 높았으나, 그 외의 항목에서는 S 단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와 위치는 60평

<표 23> 거실장 평가

n=135

| 구분 | | f | % |
|--------------|------------------|-------|-------|
| 거실장 선택 여부 | 선택, 거실사용 | 74 | 56.9 |
| | 선택, 거실 외 다른 공간 | 31 | 23.8 |
| | 일부 안방, 일부 다른방 | 3 | 2.3 |
| | 선택, 사용안함(버림) | 8 | 6.2 |
| | 선택하지 않음 | 14 | 10.8 |
| | 계 | 130* | 100.0 |
| 거실장 불만족 사유 |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 10 | 7.7 |
| | 디자인 | 32 | 24.6 |
| | 재질/색상 | 38 | 29.2 |
| | 수납공간 | 17 | 13.1 |
| | 대형 TV/홈서버터 설치 곤란 | 10 | 7.7 |
| | 불만없음 | 20 | 15.4 |
| 계 | 130* | 100.0 | |
| 다른 공간에서 사용 |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 6 | 16.2 |
| | 디자인 | 7 | 18.9 |
| | 재질/색상 | 10 | 27.0 |
| | 수납공간 | 5 | 13.5 |
| | 대형 TV/홈서버터 설치 곤란 | 6 | 16.2 |
| | 불만없음 | 0 | 0.0 |
| 계 | 37* | 100.0 | |
| 거실장 버린 사유 | 인테리어와의 부조화 | 6 | 16.2 |
| | 디자인 | 7 | 18.9 |
| | 재질/색상 | 10 | 27.0 |
| | 수납공간 부족 | 0 | 0.0 |
| | 대형 TV/홈서버터 설치 곤란 | 5 | 13.5 |
| | 불만없음 | 6 | 16.2 |
| 계 | 37* | 100.0 | |
| 향후 거실장 선택 여부 | 선택 | 49 | 47.1 |
| | 비선택 | 55 | 52.9 |
| | 계 | 104* | 100.0 |

* 무응답자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형이, 색채와 마감재에서는 20평형이, 향에서는 40평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표 24>

2) 침실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마감재 수준에 대한 불만이 25.9%로 가장 높았고, 협소한 면적 9.9%, 짧은 안방 폭 1.4%, 짧은 안방 깊이 4.7%, 전반적 인테리어 12.7%, 마감재 수준 25.9%, 방음 수준 17.9%, 단열 정도 3.3%, 불만 없음 19.8%, 기타 4.2% 등으로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마감재 수준에 대한 불만이 불만족 사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평형의 경우 협소한 면적(25.0%)과 방음수준(25.0%)에 대해 지적도 많았다. 이는 거주자의 마감재와 인테리어에 대한 안목과 취향이 높아지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 된다면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실내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침실 선호 마감재

거실과 마찬가지로 바닥 마감재로는 온돌마루(61.9%)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벽과 천장 마감재 역시 벽지(70.9%, 85.5%)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25>

<표 24> 침실 만족도

n=135

| 구분 | 단지 | 평균 | Duncan | 평형 | 평균 | Duncan |
|-------|----|------|--------|---------|------|--------|
| 침실 전반 | L | 3.14 | A | 20평형 | 3.63 | A |
| | D | 3.53 | AB | 30평형 | 3.29 | A |
| | T | 3.63 | B | 40평형 | 3.34 | A |
| | H | 3.20 | AB | 50평형 | 3.33 | A |
| | S | 3.56 | AB | 60평형 이상 | 3.70 | A |
| | 합계 | 3.40 | | 합계 | 3.40 | |
| 색채 | L | 3.25 | A | 20평형 | 3.63 | A |
| | D | 3.39 | AB | 30평형 | 3.40 | A |
| | T | 3.38 | AB | 40평형 | 3.19 | A |
| | H | 3.07 | A | 50평형 | 3.33 | A |
| | S | 3.81 | A | 60평형 이상 | 3.56 | A |
| | 합계 | 3.36 | | 합계 | 3.36 | |
| 마감재 | L | 3.00 | AB | 20평형 | 3.63 | B |
| | D | 3.21 | BC | 30평형 | 3.15 | AB |
| | T | 3.31 | BC | 40평형 | 2.95 | A |
| | H | 2.73 | A | 50평형 | 3.11 | AB |
| | S | 3.63 | C | 60평형 이상 | 3.47 | B |
| | 합계 | 3.16 | | 합계 | 3.16 | |
| 위치 | L | 3.55 | A | 20평형 | 3.63 | A |
| | D | 3.55 | A | 30평형 | 3.53 | A |
| | T | 3.77 | A | 40평형 | 3.59 | A |
| | H | 3.53 | A | 50평형 | 3.59 | A |
| | S | 3.69 | A | 60평형 이상 | 3.83 | A |
| | 합계 | 3.61 | | 합계 | 3.61 | |
| 향 | L | 3.47 | AB | 20평형 | 3.50 | A |
| | D | 3.28 | A | 30평형 | 3.50 | A |
| | T | 3.65 | AB | 40평형 | 3.64 | A |
| | H | 3.53 | AB | 50평형 | 3.32 | A |
| | S | 3.88 | B | 60평형 이상 | 3.61 | A |
| | 합계 | 3.52 | | 합계 | 3.52 | |

<표 25> 침실 선호 마감재

n=135

| 구분 | | f | % |
|--------|-------|-------|-------|
| 바닥 마감재 | 온돌마루 | 83 | 61.9 |
| | 천연대리석 | 4 | 3.0 |
| | 인조대리석 | 5 | 3.7 |
| | 카펫 | 1 | .7 |
| | 한지장판 | 19 | 14.2 |
| | 우드플 | 17 | 12.7 |
| 계 | 134* | 100.0 | |
| 벽 마감재 | 벽지 | 90 | 70.9 |
| | 패브릭 | 29 | 22.8 |
| | 우드 | 4 | 3.1 |
| | 벽돌 | 1 | .8 |
| | 대리석 | 1 | .8 |
| | 하이그로시 | 2 | 1.6 |
| 계 | 127* | 100.0 | |
| 천장 마감재 | 벽지 | 94 | 85.5 |
| | 패브릭 | 7 | 6.4 |
| | 도장 | 1 | .9 |
| | 우드 | 7 | 6.4 |
| | 액사판 | 1 | .9 |
| | 계 | 110* | 10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4) 안방 드레스룸 형태에 따른 드레스룸 만족도

전체 주요 중 81.5%가 안방에 드레스룸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그 형태의 77.7%는 폐쇄형이었다. 폐쇄형 중 만족을 선택한 거주자는 85.1%였으며, 오픈형 중 만족에 응답한 비율은 56.0%로 폐쇄형에 대한 만족도가 오픈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5) 안방 드레스룸 불만사항

수납 공간 및 수납량 부족이 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내부 조명 및 조도가 14.7%, 환기 및 통풍 10.3%, 디자인

및 재질 8.6% 등으로 나타났다. 드레스룸에 제공된 화장대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75.0%였으며 화장대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디자인 및 재질 29.3%, 화장대 조명 25.7%, 수납공간 구성 18.6%, 수납공간 크기 15.0%, 화장대 크기 7.9%, 높이 및 위치 2.1% 등으로 나타났다.

6) 침실 불박이장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디자인 및 재질(21.2%)과 수납공간 구성 (21.2%)이 가장 큰 불만족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크기 14.4%, 문의 잦은 고장 및 불편 3.0%, 위치 1.5%, 불만 없음 22.0%, 불박이장 없음 12.9%, 불박이장이 없어 불만 3.8%(중복 응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20, 30평형의 경우 수납공간 구성 및 불박이장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40, 60평은 크기와 디자인 및 재질, 50평형은 수납공간 구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4) 주방 및 보조주방 인테리어 평가

1) 주방 및 보조주방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와 주방 만족도는 3.20, 보조주방 만족도는 3.25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아일랜드 형 배치와 주방 위치, 향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빌트인 가전에 대한 만족도는 2.86으로 다소 낮았다.

2) 주방 불만족 사항

만족도에서도 보여 지듯이, 전반적으로 빌트인 가전에 대한 불만이 21.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수납공간 20.1%, 싱크대 재질 및 디자인 18.8% 등의 순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L단지, D단지, T단지의 경우 빌트인 가전에 대한 불만(28.2%, 25.5%, 20.5%)이 가장 많았으며, H단지는 싱크대 재질 및 디자인이 28.6%로 가장 높았고, S단지에서는 수납공간(29.0%)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평형별로는 20, 50, 60평형에서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25.0%, 25.0%, 20.0%)이 가장 많았으며, 30평형에서는 빌트인 가전(23.6%)에서, 40평형에서는 싱크대 디자인 및 재질(23.2%)에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다.<표 26>

<표 26> 주방 불만족 사항 n=135

| | f | % |
|-------------|-----|-------|
| 싱크대, 주방 형태 | 9 | 3.9 |
| 넓은 면적 | 2 | .9 |
| 좁은 면적 | 10 | 4.4 |
| 위치 | 4 | 1.7 |
| 싱크대 재질, 디자인 | 43 | 18.8 |
| 수납공간 | 46 | 20.1 |
| 수납공간 위치 | 21 | 9.2 |
| 빌트인 가전 | 49 | 21.4 |
| 조명 | 2 | .9 |
| 환기 | 13 | 5.7 |
| 불만없음 | 24 | 10.5 |
| 기타 | 6 | 2.6 |
| 계 | 229 | 100.0 |

· 다중응답

3) 주방/식당 구조 선호도

ㄷ자형, 아일랜드형, 대면형 중 선호 주방 구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면형이 46.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일랜드33.7%, ㄷ자형이 20.2%로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20평형의 경우 71.4%가 대면형을 선택하였으며, 30평형의 경우에는 48.6%, 40평형에서는 대면형(41.9%)과 함께 ㄷ자형(38.7%)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0평형 이상에서는 아일랜드형 주방을 선호(50평형 57.1%, 60평형 52.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주방과 식당의 구조에 대해서는 반 개방형 구조가 58.7%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폐쇄형과 개방형의 경우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폐쇄형 21.2%, 개방형 20.2%). 각 평형별로는 선호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역시 모든 평형대에서도 반 개방형 구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주방 선호 마감재

선호하는 바닥 마감재는 온돌마루(54.5%), 천연대리석 18.9%, 인조대리석(10.6%), 타일(4.5%), 우드몹(10.6%), 기타(0.8%)순이었으며, 벽 마감재는 벽지(44.7%), 타일(15.2%), 패브릭(14.4%), 대리석(10.6%), 우드(6.1%), 하이그로시(4.5%), 페인팅 글라스와 도장(각각 0.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장 마감재의 경우에는 벽지(75.2%), 우드(10.9%), 패브릭(7.0%), 도장(5.4%), 기타(1.6%)의 순이었다.

5) 보조주방 적용 여부와 수납물품

보조주방이 적용된 주호는 91.0%로 대부분의 주호에 보조주방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전제품은 김치냉장고(25.2%)와 세탁기(24.9%)였다. 수납물품으로는 대형조리용기(53.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용품(19.0%), 저장식품(15.5%), 식기(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6) 보조주방 주요 활용용도

보조주방의 주된 사용용도는 곰국, 빨래 삶기 등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47.3%)이었으며, 생선, /8고기, 냄새 나는 음식물 조리가 35.9%, 기타 10.7%, 야채, 과일 다듬기 5.3%로 나타났다. 각 평형별로는 20평형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의 보조주방의 주요 용도는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며(30평형 55.0%, 40평형 41.7%, 50평형 48.1%, 60평형 50.0%), 20평형에서는 야채, 과일 다듬기(37.5%) 등이 주요 작업으로 나타났다.

7) 보조주방 선호 추가 기능

보조주방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기능으로는 키큰장 등 수납공간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수대 설치가 27.4%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각 평형별로는 20평형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수납공간 설치를 가장 희망하였으나, 20평형의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설치희망이 62.5%차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욕실 인테리어 평가

1) 욕실 만족도

공용욕실의 전반적 만족도는 3.16이었고, 부부욕실의 전반적 만족도는 3.40으로 부부욕실에 대한 만족도가 공용욕실보다 높았다. 그리고 공용욕실에서는 위치 만족도가, 부부욕실에서는 색채 만족도가 각각 3.46,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공용 및 부부 욕실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욕실 마감재에 대한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단지별, 평형별로 불만족 사항에 차이를 보였다. S단지는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으며, L단지의 경우 기타 의견으로 수납공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20평형의 경우 청소 불편과 미끄러운 바닥이 각각 25.0%로 가장 높았으며, 30평형은 협소한 면적과 인테리어 디자인,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이 모두 12.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40평형은 세면대, 욕조 디자인 및 재질이 16.7%, 50평형은 14.6%, 60평형은 샤워부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청소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각각 13.3%로 가장 높았다.<표 27>

<표 27> 공용 및 부부 욕실 불만족 n=135

| 구분 | 공용욕실 | | 부부욕실 | |
|---------------|------|-------|------|-------|
| | f | % | f | % |
| 협소한 면적 | 24 | 11.3 | 13 | 6.1 |
| 인테리어 디자인 | 21 | 10.0 | 14 | 6.6 |
| 바닥재 디자인/재질 | 32 | 15.1 | 23 | 10.8 |
| 세면대/욕조재질/디자인 | 21 | 10.0 | 23 | 10.8 |
| 샤워부스가 없어 불편 | 11 | 5.2 | 8 | 3.8 |
| 욕조사용의 불편 | 4 | 1.9 | 6 | 2.8 |
| 세면대 사용 불편 | 7 | 3.3 | 12 | 5.7 |
| 물빠짐 불량등 청소 불편 | 16 | 7.5 | 21 | 10.0 |
| 환기 불량 | 17 | 8.0 | 16 | 7.5 |
| 미끄러운 바닥 | 21 | 9.9 | 18 | 8.5 |
| 불만없음 | 24 | 11.3 | 38 | 17.9 |
| 계 | 212* | 100.0 | 212 | 100.0 |

* 다중응답

3) 욕실 수납장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수납공간의 부족이 욕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평형별로는 30에서 40평형에서 수납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60평형의 경우 물청소 시 수납장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음이 33.3%로 평형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4) 욕실 트렌치 불만족 사항

불만 없음이 30.4%로 높은 편이나 청소 불편이 23.0%로 비교적 높은 비율 차지했다. 단지별로는 S단지의 경우 물빠짐 불량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T단지와 H단지의 경우도 40%이상 물빠짐 불량이 가장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L단지와 D단지의 경우 청소 불편에 대한 불만족도가 물빠짐 불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20평형에서 물빠짐 불량에 대한 불만이 62.5%로 다른 평형대 보다 불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6) 현관 및 전실 인테리어 평가

1) 현관 및 전실 만족도

현관 및 전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26, 위치와 수납공간 만족도는 3.53, 색채 만족도는 3.3.2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마감재에 대한 만족도가 3.11로 가장 낮았다.

2) 현관 및 전실 불만족 사항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편(만족도 3.26, 불만 없음 34.6%)이나, 현관 및 전실에 대한 인테리어 불만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평형의 경우는 다른 평형들과 달리 협소한 면적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좁은 현관 18.2%), 인테리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다른 모든 평형에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불만(30평형:20.6%, 40평형:18.6%, 50평형:21.1%, 60평형:13.0%) 이 가장 많았다)

3) 현관 신발장 불만족 사항

현관 신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습기, 냄새, 환기 등 관리상 어려움이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평형별로는 20평형에서 50평형까지는 습기, 냄새, 환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50.0%, 32.5%, 28.9%, 29.6%) 되었고, 60평형에서는 신발장의 수납공간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20.0%로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표 28>

<표 28> 현관 신발장에 대한 불만족 사항 n=135

| | f | % |
|--------------------------|------|-------|
| 수납공간이 적다 | 8 | 6.1 |
| 수납 효율성이 떨어진다 | 17 | 12.9 |
| 신발장 재질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20 | 15.2 |
| 습기나 냄새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 37 | 28.0 |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 특별한 불만이 없다 | 48 | 36.4 |
| 기타 | 2 | 1.5 |
| 계 | 132* | 100.0 |

* 무응답자가 있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4) 회전식 수납선반 불만족 사항

회전식 신발 수납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었으나, '큰 신발의 수납이 어렵다', '청소가 불편하다' 의 순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표 29> 회전식 수납선반(맥시멈)에 대한 불만족 사항 n=135

| | f | % |
|------------------------|------|-------|
| 수납되는 신발의 양이 적다 | 5 | 3.4 |
| 신발을 꺼내고 넣기가 불편하다 | 15 | 10.3 |
| 회전식 수납선반 자체를 꺼내기가 불편하다 | 8 | 5.5 |
| 튼튼하지 않다 | 7 | 4.8 |
|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13 | 9.0 |
| 큰 신발의 수납이 어렵다 | 35 | 24.1 |
| 참소하기가 불편하다 | 22 | 15.2 |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 특별한 불만이 없다 | 38 | 26.2 |
| 기타 | 2 | 1.4 |
| 계 | 145* | 100.0 |

* 다중응답

3. 요약 및 결론

조사된 대구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주호 실내 공간별 평가와 불만족 사항들을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수납공간, 거실 마감재 및 욕실의 향 만족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수납공간과 협소한 수납공간 크기가 문제로 지적되어, 모든 평형에서 수납공간 기능의 효율화 및 시스템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의 수납공간 확보가 요구된다.

평형별로는 세대 내부에 대한 불만사항에 차이가 있었으며, 30평형 이상의 평형의 경우, 주방 빌트인 가전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40평형대 이상에서 거실 마감재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마감재의 디자인과 재질 및 수준에 대한 불만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20평형에서는 거실의 경우, 방음이나 면적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므로, 고성능의 흡음재를 사용하거나 차음 계획에 좀 더 주의하도록 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으로 침실과 거실 면적을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침실 역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방음에 좀 더 유의하고, 드레스룸 대신 안방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 방안을 모색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고려할 수 있겠다. 주방에 있어서는 수납공간과 싱크대의 재질 및 디자인, 마감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므로, 우선 수납공간을 더욱 충분히 마련하고, 다양한 마감재와 주방 가구를 옵션으로 두어 거주자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작업대 상판의 경우, 천연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천연석 가공 작업대를 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욕실의 경우는 배수와 청소 관리 및 환기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어, 트랜치 구조개선, 마감재와 바닥재의 품질개선 및 디자인 고급화, 강제 환기 시스템의 고급화 및 성능 향상, 그리고 매입형 세면장 설치가 요구된다. 현관에서는 출입구 폭 협소, 신발장 습기, 냄새, 환기 등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출입구 확장 및 문 주위 공간의 확보, 신발장 디자인 개선과 배기구 설치, 효율적인 수납장 계획으로 현관 입구 수납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0평형의 거실은 20평형과 같은 불만족 사항이 나타났고, 침실의 경우에는 수납공간의 구성과 크기, 디자인, 재질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수납장 디자인의 개선과 집중형 수납공간 제공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방은 싱크대의 재질 및 디자인, 빌트인 가전의 품질 등이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마감재와 가구 디자인의 옵션 제공, 빌트인 가전 옵션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조주방에 있어서는 수납공간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침실과의 면적 조정

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또한 부부욕실은 협소한 면적,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수납공간 디자인 및 재질이 불만족 사항으로 나타나, 욕실 면적 확장과 마감재의 고급화 및 수납장 디자인의 고급화 등이 요구된다. 현관은 인테리어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현관 신발장의 경우 습기, 냄새, 환기 외에 색채, 수납공간 불만족, 협소한 면적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므로, 효율적 수납장 계획, 신발장 디자인 개선, 현관 및 전실 면적 확대, 중문 제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0평형의 거실에서는 30평형과 마찬가지로, 방음과 마감재 수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고, 침실은 마감재 수준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문제로 지적되어 마감재의 고급화와 다양한 마감재 옵션의 제공이 필요하다. 주방의 경우에도 30평형에서처럼 싱크대 재질 및 디자인과 빌트인 가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20평형에서 40평형까지는 대면형 주방 구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므로, 대면형의 작업대 설치가 권장된다. 현관 역시 인테리어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신발장에 있어서도 습기, 냄새, 환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50평형 거실의 경우에도, 마감재 수준과 방음 수준, 협소한 면적이 가장 많이 지적되어, 다양한 마감재와 옵션제공, 마감재의 고급화, 흡음재 사용 및 차음 계획, 인접 침실 가변형 구조 적용, 발코니 확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침실에서는 역시 마감재 수준과 전반적 인테리어, 방음 수준 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방은 수납공간 외에 빌트인 가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빌트인 가전 옵션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공용욕실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부부욕실에서는 바닥재 재질 및 디자인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마감재와 바닥재, 그리고 위생기구 디자인의 고급화가 필요하겠다. 현관 및 전실은 바닥재와 인테리어, 신발장 습기, 냄새, 환기 관리, 큰 신발 수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마감재 고급화와 다양한 마감재 옵션의 제공, 신발장 디자인 개선, 그리고 배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60평형은 거실과 거실장, 주방, 현관 및 전실의 경우 50평형대와 같은 불만 사항이 나타났고, 침실에서는 마감재 수준과 방음 외에 협소한 면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부부욕실은 다른 평형대와 달리 샤워부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다소 많았다. 욕실의 경우에는 물청소 시 수납장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지에서 거실 마감재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실 전반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 역시 마감재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S단지의 경우 방음 수준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지 입주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D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수납공간이 특히 부족한

곳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조주방과 안방 드레스룸 순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주방 발코니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안방 드레스룸의 수납장 디자인이 실용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L단지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가 5단지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수납공간, 거실 마감재, 주방 전반 및 주방 마감재, 빌트인 가전, 부부욕실, 현관 및 전실 마감재에 대한 불만족 등이 그 원인이었다. 거실과 침실의 경우, 마감재 수준과 방음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침실 불박이장에 있어서는 디자인 및 마감재 재질과 수납공간 구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주방이나 보조 주방은 빌트인 가전과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공용욕실은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과 세면대와 욕조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족이, 그리고 부부욕실은 청소 불편과 바닥재, 세면대, 욕조의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다. 욕실 트랜치의 경우에는, 청소 불편과 물빠짐 불량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욕실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수납공간 부족과 디자인 및 재질 등이 불만족 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현관 및 전실에 있어서는 인테리어와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D단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실 마감재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 공간 평가에 있어서는 거실의 디자인과 벽 마감재 및 재질, 공용욕실의 바닥 마감재 재질 및 디자인, 높은 오염도 및 청소 불편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거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1순위의 경우 L단지와 동일했으나, 2순위로는 협소한 면적이 지적되었고, 침실의 경우에는 2순위가 전반적 인테리어로 나타났다. 침실 불박이장에 대한 불만족 사항과 주방 및 보조주방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공용욕실의 경우에는, 2순위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차이를 보였다. 부부욕실에 있어서는 세면대 욕조 디자인 및 재질 외에 미끄러운 바닥재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욕실 트랜치와 욕실 수납공간, 현관 및 전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L단지와 유사했다.

T단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납공간과 거실 마감재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고, 거실에 있어서는 마감재나 방음 수준 이외에 전반적 인테리어가 많이 지적되었다. 침실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L단지와 유사하며, 침실 불박이장에 있어서는 수납공간 구성과 크기가, 주방 및 보조주방에 있어서는 앞의 두 단지와 마찬가지로 빌트인 가전과 수납공간이, 공용욕실에 있어서는 협소한 면적과 청소 불편,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재 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부욕실의 경우에는 다른 단지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세면대 사용 불편과 샤워부스 설치가 불만족 사항으로 많이 지적되었다. 욕실 트랜치에 있어서는 1순위가 물 빠짐 불량, 2순위가 청소 불편으로 나타났으며, 욕실 수납공간에 있어서는 수납공간 부족 외에, 물청소 시 수납장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다. 현관 및 전실

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는 다른 단지들과 다르게 높은 오염도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와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 순으로 나타났다.

H단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납공간, 인테리어, 거실 마감재, 침실 마감재, 보조주방 전반, 주방 마감재, 빌트인 가전, 욕실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거실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있어서는 T단지와, 침실의 경우에는 D단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침실 불박이장에 관한 불만사항으로는 불박이장의 크기와 디자인 및 재질이 지적되었으며, 주방 및 보조주방에서는 싱크대 디자인 및 재질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단지와 차이를 보였다. 공용욕실과 부부욕실, 욕실 트랜치, 그리고 욕실 수납공간은 다른 단지들과 유사한 불만족 사항이 지적되었고, 현관 및 전실의 경우에는 다른 단지와 달리, 인테리어나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 외에 좁은 현관이 2순위로 지적되었다.

S단지는 전반적 만족도가 전체 단지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수납공간이나 거실 마감재, 그리고 보조주방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만족도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거실의 경우, D단지와 마찬가지로 방음수준과 협소한 면적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고, 침실의 경우에는 방음 수준 외에 협소한 면적이 지적되어 다른 단지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D단지의 경우, 다양한 공간 계획과 자투리 공간 활용에 의해 침실 면적의 비율이 다른 단지에 비해 비교적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방 및 보조주방에서는 다른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수납공간과 싱크대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나, 공용욕실에서는 다른 단지들과 달리 환기불량이 가장 큰 불만족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부부욕실에서는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 세면대 욕조 재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욕실 트랜치의 경우에는 악취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욕실 수납공간은 H단지와 유사한 불만사항들이 나타났으며, 현관 및 전실의 경우에는 좁은 현관과 바닥재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 1, 2순위로 나타났다.

조사된 결과를 서울 지역의 거주자 평가와 비교해 보면⁸⁾, 평면구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두 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침실1의 용도도 부부침실로 사용되는 비율이 유사했으나, 침실2에서는 대구지역의 경우 서재로 사용되는 비율이 서울 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대구 지역 거주자의 연령대가 서울 지역보다 높고, 특히 50평형과 60평형 거주자의 자녀가 분가한 경우가 서울보다 많아 자녀침실의 필요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확장 희망 공간에서는 두 지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8) 이상희, 건설사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45-55

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 침실2, 거실, 보조주방, 공용욕실, 주방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구 지역 거주자들은 거실, 보조주방 침실2, 안방 드레스 룸 주방의 순으로 확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 지역의 경우, 대구 지역보다 거주자 연령대가 낮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많아, 자녀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침실2를 확장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는 1.5%에 불과한 공용욕실의 확장을 12.5%나 희망한 것도 이와 관계되며, 이와는 반대로 대구 지역에서는 40-50대 거주자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거실의 확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불만족 실내공간을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거실, 공용욕실, 보조주방, 주방, 부부욕실의 순으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대구 지역도 이와 유사하다<표 9, 표 10>. 구체적인 불만족 이유도 두 지역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와 '마감재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마감재 내구성이나 오염되기 쉬운 점 등을 지적하였다.

마감재 수준개선 희망항목으로는 서울과 대구 지역 모두 거실 벽지 및 바닥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순위는 각각 화장실 욕조와 붙박이장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은 주방가구와 빌트인 가전으로 두 지역이 동일했으며, 4순위는 서울지역이 조명기구, 대구지역이 화장실 욕조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의 수납공간 만족도가 서울지역에서보다 다소 낮은 것에도 연관되는데, 수납 부족공간에 있어, 서울 지역 거주자들은 주방과 보조주방을, 대구 지역은 보조주방과 안방 드레스룸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종합해 볼 때,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구지역 아파트의 주호 내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감재의 디자인, 재질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나타난 것과, 욕실에서 배수, 오염도 등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은 차후 계획에 주민들의 높아진 디자인 안목과 유지관리 측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보다 높은 연령대와 Life Stage⁹⁾를 고려하여 넓은 평형에서는 침실 2를 서재 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넓고 탁 트인 거실 공간의 디자인도 요구된다. 또한 대구 지역 거주자들은 서울 지역에 비해 평형과 관계없이 수납공간에 대해 대체적으로 더욱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납공간의 면적과 크기, 배치 및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보조 주방과 안방 드레스 룸의 수납공간에 대한 고려가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방의 발코니 일부를 확장하고 작업대를 배치하여, 보조 주방의 수납공간뿐만 아니라, 식당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드레스 룸을 발코니화하거나 벽체를 안방 쪽으로 개방하고 수납장의 수납공간 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드레스 룸의 채광 및 전망을 확보하면서도 수납에 실용성을 기할 수 있는 계획도 요구된다. 세탁 전용 공간의 부재에 있어서는, 주방 발코니 수납장을 응용하거나 발코니 일부 확장을 통해 작업대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욕실의 채광문제는 외기에 접한 창을 계획하여 환기와 채광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고, 협소한 현관은 현관 중문을 제거함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통계청(2006), <http://www.nso.go.kr>,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조사 결과 [가구 주택 부문], 2006
2. 이보라·신연섭·연태경, 국내공동주택 트렌드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5
3. 최정원·임보련·이효창·하미경,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선호 분석을 통한 건설사의 지방 시장 진출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5
4.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전국주택건설(인허가)실적, 2006
5. 장경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디자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
6. 박남희·이준민, 브랜드 아파트의 평형별 평면계획 내용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 22호, 2006
7. 이세나·이현수, 거주자 요구를 고려한 수납면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통권 제 10호, 2006
8. 하미경·임보련, 웰빙 트렌드에 따른 아파트의 건강 관련 실내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제 50호, 2005.6
9. 이연숙·이현정·이지영, 가족생활주기별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요소 선호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제49호, 2005.4
10. 이상희, 건설사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대구광역시청, <http://www.daegu.go.kr>, 대구 통계 DB, 인구, 2006년 상반기
12.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서울 통계 DB, 인구주택 총조

<접수 : 2006. 9. 17>

9)서울특별시청(<http://www.seoul.go.kr>),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5년 단위로 실시), 인구 연령별 검색에서 서울 지역의 20-30대 인구는 서울시 총인구 9,853,972명 중 3,783,034명(38.4%), 40-50대 2,585,926(26.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구지역은, 대구광역시 통계DB 2005년 연령별 인구통계(<http://www.daegu.go.kr>)에서, 20-30대는 대구시 총인구 2,500,699명 중 20-30대는 828,993명(33.2%), 40-50대는 734,996명(29.4%)으로 집계되어, 대구지역의 20-30대 인구구성 비율은 서울보다 다소 낮았고, 40-50대 연령의 인구구성 비율은 서울 지역보다 높았다. 또한 대구 지역의 인구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30대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40-50대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